

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18년 여름 · 62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태조 건원릉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18년 여름 ■ 62호 Contents

기획/왕릉	볼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석물과 눈맞춤을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4 8 12
문화칼럼	네안데르탈인과 미세먼지	16
전시실 산책	나라를 편하게 하는 사찰 寧國寺	20
회원마당	고려청자의 세계 이별 못한 이별	24 26
박물관 탐방	숨길 - 국립제주박물관	29
박물관 소식	칸의 제국 몽골	32
숨은 전시	친구를 부탁해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4

발행일 2018년 6월 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발행·기획 신병찬 편집회원 강현자·계윤애·길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서승연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신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볼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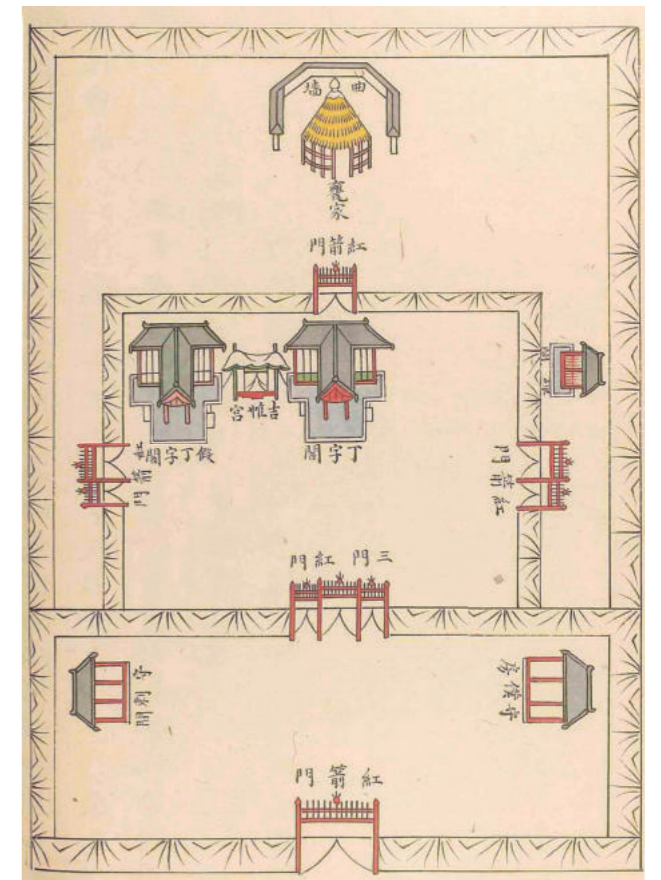
매표소가 열리고 소풍 나온 학생들이 와글와글 입장합니다. 유치원 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네요. 아이들은 잔디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굴러 내려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동물 석상 위에 올라앉아 사진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지요.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관리인 아저씨의 성화에 내려왔다가도 아저씨가 안 보이면 슬그머니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도 봉분에는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곳은 왕릉이었지요. 입구의 안내판을 보면 이 곳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정말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조만간 올챙이를 잡으러 오거나 어찌면 가을 소풍으로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조선왕릉에선 이런 광경은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이 방문하기는 하지만 소풍이라기보다는 현장학습이고 돛자리나 음식물도 반입이 안 됩니다. 관리 인력도 많아진 데다가 CCTV가 지키고 있어서 슬그머니 들어가보는 것도 불가능하구요. 대신 몇몇 능은 올라가서 볼 수 있게 해 놓았고, 그렇지 않은 능은 미리 신청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2009년에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왕릉은 너무 친근하고 익숙한 곳이어서 그런가 그다지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태릉은 선수촌, 선릉은 지하철역, 정릉은 버스 종점 아니었나요? 게다가 막상 가보면 무령왕릉이나 천마총처럼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의 유명한 고분들은 대체로 발굴이 되어 그 내부가 알려졌거나 귀중한 부장품들이 출토된 곳입니다. 반면 조선의 왕릉 중 발굴된 것도, 향후 발굴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어떻게 지어졌으며 어떤 부장품들이 들어갔는지 등을 비롯한 모든 과정을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알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가기록에 있어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선이 때마다 꼼꼼하게 남긴 국장도감 의궤, 산릉도감 의궤 등의 기록들 덕입니다.

임금이 즉위를 하면 그해에 소나무로 왕의 관인 재궁(梓宮)을 제작하고 재위기간 동안 매년 한 번씩 옷칠합니다. 그 밖의 왕릉 조성 작업은 대부분 왕이 사망한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정조의 건릉을 예로 들자면 1800년 6월 28일에 정조가 승하하고 장례절차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7월 6일에 능호가 정해지자 산릉도감 담당자들이 왕릉 터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생전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과 마주보는 곳에 터를 마련해놓았지만 적절하지 않다 판단되어 현재의 건릉 터에 역사(役事)를 시작하게 된 것은 8월 2일이었습니다. 8월 24일에 재실과 정자각의 주춧돌을 놓고 9월 13일에 무덤 작업하는 곳을 가리고 보호하는 옹가(甕家)를 세우고 9월 30일에 외재궁을 묻어 주변을 석회로 다졌습니다. 10월 6일에 정자각 단청작업이 완료되고 11월 1일에 문무인석과 망주석 등의 석물이 세워졌습니다. 6일에 드디어 재궁을 안장하고 10일에 옹가를 견고 13일에 모든 행정절차까지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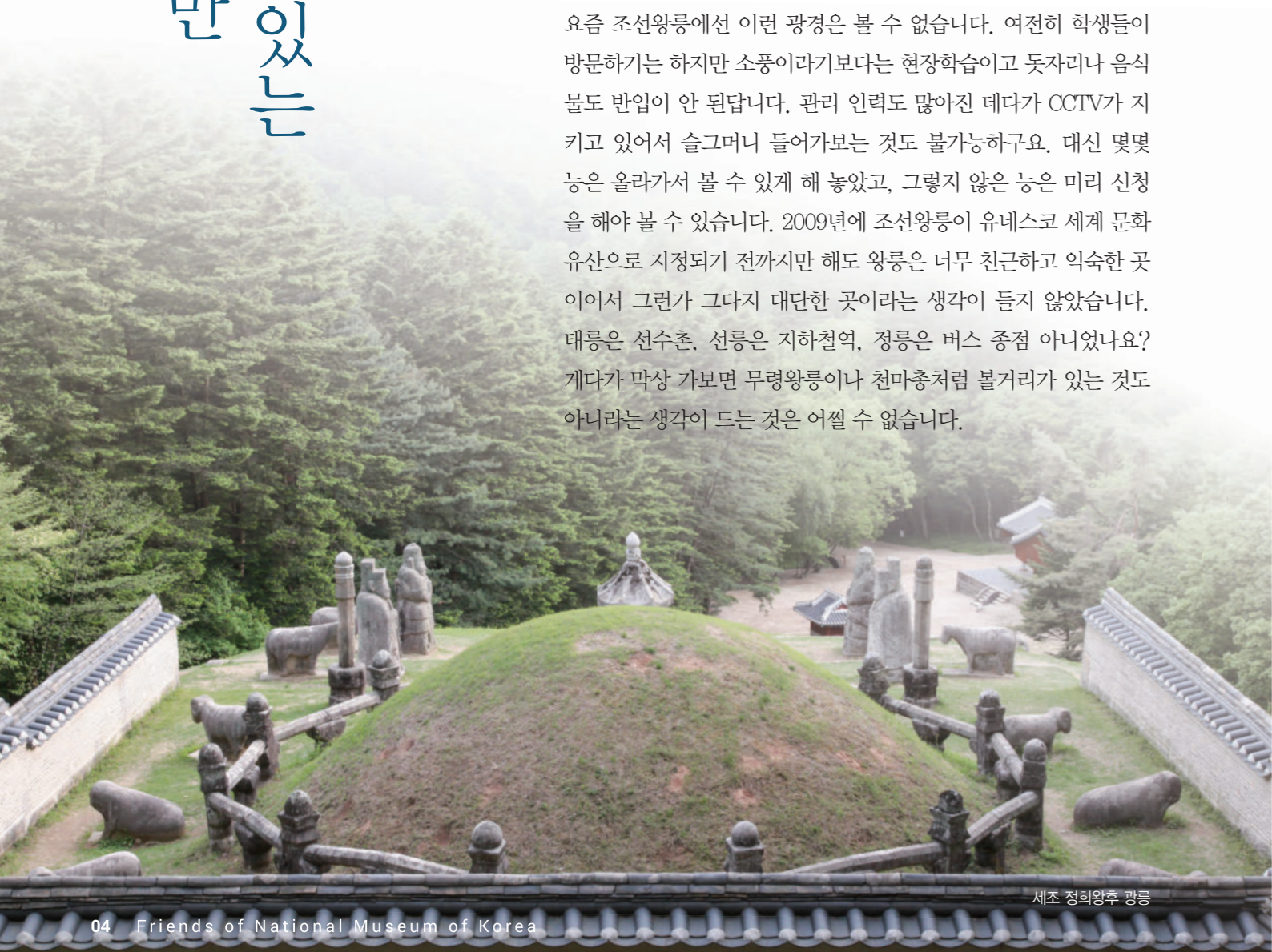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매우 촉박했을 것으로 보이는 4개월 반의 일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단기간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임금이 사망하는 시기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라 농번기와 겹치기라도 하면 농민을 사역할 수 없어서 대체인력을 차출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철인왕후 예릉 산릉도감 의궤」 중 유문도, 규정각 제공



옹가로 향하는 순종의 재궁



세조 정희왕후 광릉



숙종 명릉 석물

산릉 구성에 들어가는 인력과 재화를 최대한 절감하되 격식은 갖추는 것이 역대 임금들의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세종이 부모인 태종과 원경왕후의 능은 쌍릉으로 조성했으나 자신의 능은 합장릉으로 조성한 것도 그런 고민의 일환이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두 개의 석실을 조성해야 하는 탓에 1만 2천명이나 되는 인력이 동원된 데다가 농번기까지 겹쳐 석난간이나 정자각 건설은 뒤로 미루고 인력을 중간에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지요.

문종의 현릉을 조성할 때는 석실에 쓸 커다란 개석을 강 건너로 옮기느라 8천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는데 강물이 불어나서 사망사고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이었던 시절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세조는 자신의 왕릉에는 회격을 사용하라는 유명을 남겼습니다. 석회와 모래와 흙을 섞은 삼물로 마치 거푸집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드는 회격릉은 석실로 만드는 방식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조성이 가능했으니까요. 게다가 이 방식

은 『주자가례』에서도 권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숙종 또한 석인의 크기를 작게 만들라는 명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동구릉에 있는 조선 전기 왕릉을 본 다음 서오릉에 있는 숙종 명릉의 석인들을 보면 자그마해서 귀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회격으로 조성한 능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경내에 있는 장경왕후의 옛 회격 터입니다. 아쉽게도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사진으로나마 접해볼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의 신문 기사를 보면 매우 견고해서 포크레인으로도 찍어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 역시 세조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의 광릉부터 한동안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둘러싼 것은 검소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회격이 중량을 이기지 못할까 하는 염려도 있기 때문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안정성이 확인되자 몇 대 가지 않아 다시 병풍석을 두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려 왕릉들이 도굴꾼들에게 털리



옛 회릉, 회격실 발굴 현황

는 세월 동안 조선 왕릉에도 도굴 시도가 없지 않았지만 회격은 그마저도 막아냈습니다. 물론 값나가는 부장품을 넣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지요.

비록 왕릉 속은 들여다볼 수 없지만 세계사에서도 흔치 않을 정도로 긴 역사를 가진 왕조인 데다가 넘칠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 기록들 덕분에 우리는 국장과 왕릉 자체에 대한 지식에 더하여 그것을 만들고, 옮기고, 격상시키고, 격하시키는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 사회상, 백성들의 노고와 어려움까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면 왕릉의 외적인 모습으로만 치세를 가늠하는 오류를 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왕릉을 재활용하기도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종의 옛 영릉 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 순조 인릉에는 옛 영릉의 석물을 파내서 재사용하고 모자란 것은 장경왕후 옛 회릉 터에서 파낸 석물들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의 제도를 따른 마지막 왕릉인 철종 예릉의 석인들이 유난히 웅장하고 큰 이유도 비슷합니다. 문정왕후가 남편 중종의 정릉을 서삼릉에서 현재의 강남구 삼성동으로 천장할 때 땅에 파묻었던 석물들을 파내어 쓴 것입니다.

같은 경내에 있는, 가장 크다고 하는 중종의 다른 왕비 장경왕후 회릉의 석물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시기의 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이 단지 실용주의나 애민정신의 발로였다면 뿌듯한 일이겠지만 하필이면 그 예가 삼정이 문란했던 세도정치 시기 왕권이 약했던 왕들이라 보니 자꾸 씩씩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황제릉으로 조성되어 참도參道 양옆에 커다란 문무인석과 갖가지 동물상들이 도열해 있는 흥릉과 유릉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무덤은 황제이면서도 망국의 군주이기에 일제가 정한 법에 의해 능호를 받지 못하고 묘라고 칭해질 뻔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둘 다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고종은 1897년에 조성된 명성왕후의 흥릉, 순종은 1905년 황태자비일 때 사망했던 순명효황후의 유릉을 현 위치로 이장하여 합장하면서 겨우 능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대한 국장은 사진으로도 남아 있습니다만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강한 왕권을 가졌으면서도 절약해가며 만든 능에 묻힌 임금들과 빈약한 왕권에 비해 웅장한 능에 묻힌 임금들을 보니 말입니다. 🌱

서유미 회원



순종 유릉 석물

석물과 난간석묘비

작은 문 하나가 경계를 가른다. 그 문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은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문 바깥은 산 자의 세계이고 안쪽은 죽은 자의 세계이다. 그 작은 문은 붉은 색으로 그곳이 신성한 곳임을 강하게 주시킴으로써 모든 잡스러운 기운을 털어내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서기를 요구한다. 숨을 가다듬고 산 자들의 부산스러운 세계를 등 뒤에 남겨둔 채 조심스레 조선의 왕과 왕비가 잠든 신들의 정원으로 들어선다.

조선왕릉에는 전 시대에 걸쳐 다양한 석물이 조성되었는데, 이들은 죽은 왕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조선연대가 확실해서 시대에 따른 조각 기법과 양식, 그 시대의 정신적인 흐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조선왕릉은 고려 공민왕릉의 체제를 따랐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왕릉의 석물 조성은 고려시대의 공민왕릉에 이르면 완성된 체제를 갖추게 된다. 공민왕릉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석양과 석호, 그리고 장명등 등 이전의 왕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석물을 갖추면서 이후 이어지는 조선왕릉의 모델이 된다.

조선왕릉의 석물은 대부분 봉분이 있는 능침 구역에 능을 겹겹이 둘러싸는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영혼의 세계에 있는 왕과 왕비의 안위를 염려하여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려는 후손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다. 능침 구역은 상계, 중계, 하계의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계는 왕과 왕비가 잠들어 있는 왕의 구역이고, 중계와 하계는 신하의 구역으로 중계에는 문인석을, 하계에는 무인석을 배치하였다. 가장 높은 상계에는 높이 쌓은 봉분이 있고, 봉분 둘레에 병풍석을 세워 봉분을 보호하고 장식했다. 그 외부로 울타리 역할을 하는 난간석을 둘렀다. 병풍석을 두지 말라는 세조의 유언에 따라 세조의 광릉 이후 병풍석을 세우지 않기도 했지만, 난간석은 병풍석의 유무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왕릉에 설치되었다. 봉분 정면에 혼유석을 놓고 그 좌우에는 망주석을 세웠으며, 주변으로 석호와 석양을 번갈아 배치하였다. 이 모든 석물을 담장 역할을 하는 곡장으로 에워쌌다.



영조 원릉 석호

병풍석은 우리나라 고유의 능묘 구조로 봉분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초기의 태조 건원릉 병풍석에는 십이지신상과 불교 기물인 영저와 영탁이 새겨져 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을 탄 십이지신상은 관복을 차려입고 홀을 들고 서 있는 인물상으로, 방위를 수호하는 십이지 동물상이 조그맣게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마모가 심해 선명하지는 않으나, 선의 흐름이 유연하고 섬세하다. 단단한 화강암을 정으로 쪼아 낸 게 아니라 붓으로 그림을 그려 놓은 듯하다. 표면상으로는 송유역불 정책을 표방했지만 아직 왕실에 불교적 의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점차 불교적인 표현이 조선의 통치 이념인 유교에 배치된다 하여 십이지신상 대신 모란문을, 불교 기물은 구름문양으로 대체했다. 병풍석을 세우지 않은 영조의 원릉에는 난간석에 십이지를 문자로 새겨 놓기도 했다.

봉분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석이 놓여 있다. 혼이 노니는 돌, 혼유석이다. 혼유석 아래에는 왕의 시신을 모신 석실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 엄청난 무게의 혼유석을 들어내지 않고는 석실로 들어갈 수 없다. 왕의 시신과 영혼을 지키는 수문장인 셈이다. 받침돌의 네 귀퉁이에는 물고기 머리에 귀신 얼굴을 한 나어두가 입을 크게 벌려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고 또다시 경고한다. 건원릉의 경우 5개이지만 세종의 영릉부터 4개로 간소화되었다.

봉분 옆에는 석양과 석호를 번갈아 세워 놓았는데 봉분 쪽으로 엉덩이를 내놓고 곡장을 향하고 있다. 능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지라 경계에 전념하는 모습이 사뭇 결연하다. 양의 온순함과 호랑이의 사나움을 강조하여 번갈아 배치함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염두에 두었다. 석양의 다리 사이는 뚫려 있거나 막혀 있는데, 막힌 면에는 난초, 국화, 원추리 등을 새겨 아름다움을



태조 건원릉 병풍석



인조 장릉 병풍석

더했다. 석호는 눈을 부릅뜨고 송곳니를 드러내어 사나운 모습을 표현하려 했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풋 웃음이 터진다. 둔중한 몸매와 익살스러운 표정이 구수하고 푸근하다. 등줄기를 쓰다듬으면 살아있는 양 따뜻함이 전해진다.

혼유석의 좌우에는 한 쌍의 망주석을 세워 멀리서도 그곳에 무덤이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노닐던 혼이 자신의 몸이 있는 무덤을 찾을 때 망주석을 이용한다고 한다. 기둥에 새겨진 세호 장식이 앙증맞다. 이름대로라면 작은 호랑이인데 호랑이의 모습은 어디



영조 원룡 석양



태조 견원룡 석양

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조선 초기 왕릉에 새겨진 세호는 ‘귀(耳)로 불렸으며 동물 형상이 아니었다. 건원룡 망주석의 세호는 가운데가 오목한 게 실을 감아 두는 실패 모양 같은데, 중간에 구멍이 나 있다. 신성한 구역임을 표시하는 금줄을 매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점점 장식이 더해져 선조의 목릉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꼬리가 있는 동물 모양의 세호가 등장한다. 특히 영조 원룡의 세호는 우락부락한 얼굴, 등줄기의 골격 등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활발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호랑이는 아니고, 용인지 다람쥐인지 모호하다. 초기에는 좌우 망주석 모두 위로 향하다가 숙종 명릉부터 한 쪽은 올라가고 다른 한 쪽은 내려가는 모양으로 조각되었다. 대체로 좌승우강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나 반대로 조각된 경우도 있다.

중계와 하계에는 단을 달리해 석마를 대동하고 문인석과 무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공복 차림으로 활을 들고 서 있는 문인석이 왕을 배알하는 모습이라면 갑옷을 입고 두 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 무인석은 왕을 호위하는 모습이다. 키, 얼굴, 신체 윤곽, 옷 주름 등의 표현에서 변화가 있어 제작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무인석을 문인석보다 한 단 아래인 하계에 배치하였는데

영조의 원룡부터 이 구분이 없어지고 같은 단에 배치된다. 문물의 개혁과 함께 일어난 시대상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어 무관의 당당하고 근엄한 인상이지만, 두툼한 볼살과 뭉툭한 코는 털털한 웃음으로 푸근하다. 어깨에 쌓인 이끼가 지나온 세월의 더께인양 두텁다.

문무인석은 각각 석마를 두고 있는데 석마는 고개를 숙이고 대기하는 자세로 서 있다. 문무인석에 비해 석마의 크기가 너무 작고 꼬리도 땅에 닿도록 길게 늘어뜨리고 있어 사실감이 떨어진다. 석마는 통일신라왕릉이나 고려왕릉에는 없던 석물로 조선왕릉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조선왕릉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대부터이며, 이때 이전에 조성된 태조의 건원룡, 정종의 후릉, 태종의 현릉에 석마를 추가로 설치했다. 석마 역시 석양처럼 조선 전기에는 다리 사이를 뚫었다가 후기에는 뚫지 않고 난초나 영지를 조각하였다.

한편, 대한제국 선포 후 조성된 고종의 흥릉과 순종의 유릉은 이전의 왕릉과 달리 황제릉 체제로 변모한다. 병풍석과 난간석, 혼유석과 망주석, 그리고 장명등은 전통대로 능침 구역에 그대로 두고, 중국의 황제릉을 본떠 문무인석



태조 견원룡 망주석 세호 장식



선조 목릉 망주석 세호 장식



영조 원룡 망주석 세호 장식

과 석수들을 침전 앞으로 배치했다. 석호와 석양이 제외되고 기린, 코끼리, 사자, 해치, 낙타 등 새로운 석수가 등장한다.

이전의 왕릉에서는 석물을 능침 구역에 배치하여 왕을 수호한다는 상징성을 나타낸 반면, 흥릉과 유릉에서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침전 앞에 도열시키듯 세워 황제의 위용을 드러내고자 했다. 일본인 조각가의 근대적 조각 기술로 제작된 석물들은 입체적이며 사실적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우리네 정서가 느껴지지 않아 낯설고 어색하다.

조선왕릉의 석물은 하나하나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설치되었다. 각자가 지닌 그 상징성에는 우리네 고유한 정서가 녹아 있어 쉬이 마음이 열린다. 비록 서양의 대리석 조각처럼 섬세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화강암의 거친 느낌과 기교 없는 담대한 표현은 구수하고 푸근한 정으로 다가온다.

오늘도 석호와 석양은 너털웃음으로, 근엄한 얼굴로 서 있는 석인상은 저 너머의 시간을 가슴에 품고 신들의 정원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차갑고 굳은 석물에서 온기를 느끼며 눈맞춤을 한다. ☁

계윤애 회원





현덕왕후릉에서 바라본 문종릉

이제는 돌아와 선 거울앞에

그런 역사가 있었노라고.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뒤적여 보려네. 봉분마다, 슬프고도 아픈 역사만은 아니라고, 그래도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았노라고, 대신 말해주기라도 하듯 뽀족뽀족 새순이 돋는 왕릉 앞에서.

문종과 현덕왕후가 잠들어 있는 현릉은 여느 능과 달리 참도가 홍살문에서부터 두 번이나 꺾이어 정자각에 이른다. 꺾이꺼이 울음조차도 울 수 없었던 이들의 혼을 그렇게라도 달래보려 했을까. 서로 다른 언덕에 안치된 동원이강릉으로, 동편의 현덕왕후릉은 난간석만 설치되어 있는 반면, 문종릉은 화려한 난간석은 물론, 구름무늬 병풍석이 봉분을 든든하게 감싸 안고 있다. 『국조오례의』에 따라 조성된 가장 오래된 왕릉다운 고풍스러운 자태로, 파란의 삶이 언제 있었냐는 듯, 서로를 다독이며 넋지시 서로의 능을 건네다 보고 있다. 능을 수호하는 석물들이 이국적이면서 웅장하다. 하지만 웅장한 석물들에 비하면 이분들의 역사는 그리 웅장하지 않다. 출발부터가 그랬다.

세종이 직접 간택한 왕세자(문종)의 첫째 빈과 둘째 빈이 갖가지 비행으로 왕실을 문란케 한 뒤 퇴출된 사건부터 파란을 예고했던가. 그 시작은 왕세자 빈이 아들(단종)을 낳은 뒤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부터다. 문종 또한 정빈 없이 왕위에 올랐으나 2년 4개월의 짧은 재위를 뒤로 하고 39세의 나이로 병사하게 된다. 비극은 문종의 이른 승하와 함께 일찍 찾아왔다. 12세의 어린 아들 단종이 왕위를 받아야 했는데,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야 하는 조선의 적장자 계승 원칙이 무리였을까, 야심을 품고 그 틈을 노린 권력욕이 문제였을까. 어린 왕에게 정치적 혼란이 몰아치는 계기가 되었으니. 단종은 즉위 3년 2개월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 영월로 유배를 가는 신세가 된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무덤 속에서 폐비가 되어 서인으로 강등되고, 단종 비 정순왕후 또한 서인으로 강등되어 궁에서 쫓겨나 동대문 밖 송인동에 있는 정업원(청룡사)에 머무르게 되는데, 귀양길에 오른 단종과 정업원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다. 정업원은 궁중의 비빈妃嬪만이 출입하던 내불당의 명칭이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멀고도 먼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는 노산군. 그리고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서인이 된 여인. 그날 그들의 비통한 이별을 지켜봤을 영도교. 다리란 본래 이쪽과 저쪽을 잇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거늘, 그날의 영도교는 한 나라의 왕과 왕비였던 그들의 생이별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 그뿐 아니라, 지아비를 영영 떠나보낸 마지막 장소로 남아 '영 이별 다리'로 불리게 되었다. 그들의 나이 단종 17세, 정순왕후 18세. 그 길이 서로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유배길에 오른 그해, 단종이 살아 있는 한 북위운동이 계속될 거라 여긴 세조는 마침내 단종을 살해하게 된다. 단종이 세상을 하직하고, 정순왕후는 홀로 정업원에서 염

색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간다. 한때 한 나라의 왕비였던 여인의 삶이 더없이 애처롭구나. 그녀가 염색업을 할 때 물을 길던 곳인 자주동샘이 현재 낙산 아래에 있는 비운당 뒤쪽에 남아 있다. 이 샘에서 빨래를 하면 신기하게 자주색 물감이 들었다 하여 이 샘을 자주동샘이라 불렀다. 샘 위쪽에 자주물을 들일 때 넘어 말리던 거북바위가 있다. 이 바위를 자주바위라 하고, 그 마을 이름을 자춘골이라고 불렀다. 한양 아낙네들은 이를 팔아주기 위해 일부러 자주뜰등을 달아 입었다고 한다. 그녀는 날마다 눈, 비를 가리지 않고 정업원 앞에 있는 낙산의 산봉우리에 올라가 단종이 떠난 동쪽을 바라보며 슬피 울었다. 그 곡소리가 아랫마을까지 들렸는데, 온 마을 여인네들이 그 곡소리를 들으며 땅 한 번 치고 기슴 한 번 치는 동정곡을 함께 했다. 사람들은 이 봉우리를 동망봉이라고 불렀다. 동망봉 남쪽에 동망정(낙산정)이라는 정자가 남아 있다. 열다섯의 나이로 한 나라의 왕비가 되어 1년 6개월의 짧은 시간을 보내고, 지아비를 여인 후 홀로 60여 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조선의 거둬진 사회를 겪으며 비운의 시대를 살다 간 여인. 훗날 영조는 이 슬픈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문종 현릉



정순왕후 사릉

청룡사 경내에 비석과 비각을 세우게 하였다. 이 비각은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남아 있다. 비각 안에 있는 비석의 정면에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라고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는 눈물을 머금고 썼다는 내용이 담긴 영조의 친필이 새겨져 있다.

야사에서는, 세조가 단종을 죽인 뒤 세조의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나 침을 뱉었다고 한다. 그날 세조의 아들이 가위에 눌러 죽자 세조가 분노하여 안산에 있는 현덕왕후의 소릉을 파헤쳐 관을 강물에 던졌다. 관이 바닷물에 떠다니다가 어느 곳에 닿았는데, 그곳이 육지가 되어 우물이 생겼다고 전한다. 그 우물의 이름을 관우물이라 불렀다. 현재 반월공단이 자리한 안산시 묵내동에 관우물지의 표석이 있다. 어쨌거나,

현덕왕후는 중종 8년 현덕왕후로 복위되어, 안산을 떠나 문종의 능 동편에 안장되었다. 문종과 몇 해를 함께 살아 보지도 못하고 홀로 무덤 속에서 갖은 수난을 당하다가 56년 만에 구리시 현릉에 돌아와 문종과 동원이강릉으로 나란히 묻혔으니, 본래 왕릉과 왕후의 능 사이에 큰 수풀이 가로막혀 있었으나 왕후의 능이 자리한 뒤부터는 그 숲

의 나무가 저절로 말라버려 서로의 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제서야 보는 이의 마음도 따뜻해지리니, 안산에 있었던 현덕왕후의 소릉 터에는 현재 반월공단이 들어서 있고, 다행히 석물 몇 점은 그 자리에 묻혀 있다가, 500여 년이 지난 뒤에 단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발굴 팀에 의해 석양, 석호, 난간석주 등 28점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 중 석호 한 쌍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야외에, 다른 석물들은 안산문화원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낙산 동망정

한편, 정순왕후의 무덤인 사릉은 대군부인 예로 장사 지낸 뒤 왕후 능으로 추봉되었기 때문에 다른 능에 비해 단출하게 꾸며져 있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쓸쓸해 보인다. 숙종은 '평생 단종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공경함이 바르다.'는 뜻으로 능호를 사릉(思陵)이라 붙여 주었다. 이곳 장명등은 숙종 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영월 장릉에 있는 장명등과 더불어 조선 시대 최초의 사각 장명등으로 평가된다. 사릉을 휘 둘러싼 소나무들이 유독 빼어나면서도 예사롭지 않은 것이 이곳 소나무들은 단종의 능인 장릉 쪽을 향해 고개 숙여 자란다는 전설이 있다. 강원도 영월 단종의 장릉 입구 길가에 정령송이 서 있는데, 이곳 사릉에서 가져다 심은 것이다. 사릉 앞에도 장릉에서 가져다 심은 정령송이 있다. 단종과 왕후가 살았던 세월의 무게가 달라서일까 소나무마저도 서로 다른 느낌으로 애뜻하게 어울려 있는 모습이 애잔하다. 보는 이의 기우 탓이려나. 멀고도 먼 곳에 서로 떨어져 각기 쓸쓸히 소나무와 벗하고 있는 그들의 애절한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겠다. 무덤 속에서만 서로의 혼이 깃든 소나무로 영혼을 합쳐 서로의 그리움을 씻어 주자는 뜻이리라. 평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견디었을 당신들의 고난이 우리의 역사를 길고도 깊게 하였으니,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사릉 동편에는 경혜공주의 아들이자 정순왕후의 시양자인 정미수의 무덤을 비롯한 사가의 무덤 몇 기가 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중종은 정순왕후가 사망하자, 그녀를 대군부인의 예로 장례를 치르게 했다. 능을 조성할 처지가 아니므로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가 출가한 해주 정씨 가족 묘역에 안장하고, 해주 정씨들이 제사도 지내 주었다. 원래 왕릉이 조성되면 인근의 민묘들을 모두 이장해야 했으나, 해주 정씨 묘역은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왕실의 법도도 인정에는 미치지 못하였던가.



정순왕후 사릉 정령송

문종과 그의 비 현덕왕후, 그리고 문종의 아들 단종과 단종의 비 정순왕후. 한 여인은 죽은 뒤 수십 년 동안, 또 한 여인은 오래도록 살아생전 갖은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그의 지아비들은 짧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길고 질긴 흔적을 남겼다. 그들의 아프고 슬픈 역사가 있는 반면,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준 후손들의 따뜻한 역사도 함께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로 꽃피었음을, 이곳 현릉과 사릉에서 읽는다. 이처럼 슬픈 역사가 우리에게 돌아와 꽃이 되었으니, 여보시게 대한민국, 역사를 꽃 피우기 위해 이리도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던가.

한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능을 뒤로 하고 가는 길, 허어리 한 그루 피어 있다. 그만의 꽃빛을 하고, 여러 개의 꽃자루가 층, 층, 층 차례를 이루어 땅을 향해 피어 있다. 머리를 숙여 흙을 보라 하는 듯, 역사의 흔적의 중심에 있는 능을 보라 하는 듯, 역사의 뒤안길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서 고난을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라 하는 듯.

강원자 회원

네안데르탈인과 미세먼지

수만 년 전의 미세먼지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 찾아왔지만 미세먼지로 연일 괴롭다. 창문도 활짝 열어놓지 못하고 형형색색의 봄꽃을 만끽할 수도 없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에는 아이들의 체육시간도 운동장에서 사라진다.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멀리하고자 밖에 나갈 때는 미세먼지를 걸러준다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집에 돌아와서는 설 새 없이 공기청정기를 돌린다.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지역별로 알려주는 ‘앱’의 도움을 받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 보기도 한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를 떠나서라도 피하고 싶은 심정이니, 미세먼지를 겨우 봄의 불청객 정도로 가볍게 표현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쯤 되면 미세먼

지가 없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때의 지구는 요즘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먼지가 많았다. 당시의 먼지는 초특급 규모의 화산폭발로 발생했는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토바(Toba) 화산과 이탈리아의 캄파니아(Campanian Ignimbrite) 화산이 바로 그 엄청난 먼지를 일으킨 주범이다. 아무리 엄청난 화산이지만 인도네시아와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폭발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라도 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먼지 때문에 당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3~5도 정도 낮아졌으니 먼지의 힘을 절대 가소롭게 생각해서는 안 될 듯싶다. 이 두 화산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데,



네안데르탈인의 머리뼈 화석들

특히 캄파니아 화산 폭발 때 발생한 먼지가 지중해와 아프리카를 지나 러시아 평원까지 덮었다는 보고가 2013년 플러스원(PLoS ONE) 저널에 발표되기도 했다.

7만 5000년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중의 하나로 제주도만 한 크기의 호수를 폭발의 흔적으로 남겨놓았다. 4만년 전 무렵에 발생한 이탈리아의 캄파니아 화산은 폼페이를 날려버린 베수비오스 화산을 능가하는 폭발로 지난 20만 년 동안 유럽에서 발생한 화산 중 가장 폭발력이 컸던 화산으로 악명이 높다. 이 두 차례의 대폭발로 어마어마한 양의 회색 먼지가 지구를 뒤덮어 햇빛을 가렸고 이 때문에 당시 지구의 온도가 더 낮아졌던 것이다. 그야말로 이가 덜덜 떨리게 추운 빙하기에 엮힌 데 덮친 격이다. 화산 먼지로 추워진 당시의 기후를 화산 겨울이라고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지독한 겨울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계속되었다고 한다.

먼지로 만난 두 인류

엄청난 화산 폭발로 인한 먼지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주인공은 당시 유럽에 퍼져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이었다. 네안데르탈인이라면, 하도 추운 기후에 오래 살아서 몸도 추위에 특화된 체형으로 적응했다는 바로 그 옛 인류가 아닌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시나봉 화산
출처: Flickr, Pavel Kirillov

네안데르탈인의 키는 우리보다 작아서 어깨 정도밖에 못 미치지만, 근육이 다부지게 잘 발달한 체형을 가졌다. 한마디로 몸통이 크고 팔다리가 짧은 체형인데, 이런 체형은 백 미터 달리기와 사냥, 우사인 볼트의 몸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비록 달리기를 잘하기는 어렵지만 네안데르탈인의 체형은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열 소실을 최소화하여 추위를 잘 견디게 해 주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춥고 척박한 빙하기의 환경에서는 그야말로 적응력 갑(!)이 될 수 있는 체형이라 생활력으로 치자면, 호모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은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오랫동안 아프리카에만 있다가 아프리카 밖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추운 유럽지역에 퍼져 있었던 네안데르탈인에 비하면 햇병아리 신입생에 불과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네안데르탈인에게 뜻밖의 시련이 닥쳤으니, 바로 화산 폭발로 인한 먼지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원래도 당시의 유럽은 겨울왕국이었지만 화산 폭발이 일으킨 먼지 때문에 더 혹독한 빙하기가 찾아왔다. 날씨가 더 추워져서 네안데르탈인이 즐겨 먹던 순록과 들소, 멧돼지, 말을 사냥하기 어려워졌고 마침내 네안데르탈인도 좀 더 따뜻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피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남쪽으로 내려오니 먹잇감으로 이용할 만한 생태 자원이 훨씬 풍부해졌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는 다른 얼굴과 몸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도 마주치게 되었다. 먼지가 만들어낸 기후 변화로 인해 두 인류가 만나게 된 셈이다.

과거 두 인류가 만났던 흔적은 현재 우리 몸 안에 남아 있다. 이름도, 생긴 모습도 낯설지만 한데 우리 몸 안에 네안데르탈인과 과거 우리 조상이 만났던 흔적이 남아 있으니 놀랍기 그지없다. 하지만 분명 우리 몸 안의 유전자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대략 2퍼센트 정도 섞여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30억 염기쌍 중에서 아무 염기나 하나를 뽑았을 때 그 염기가 네안데르탈인 조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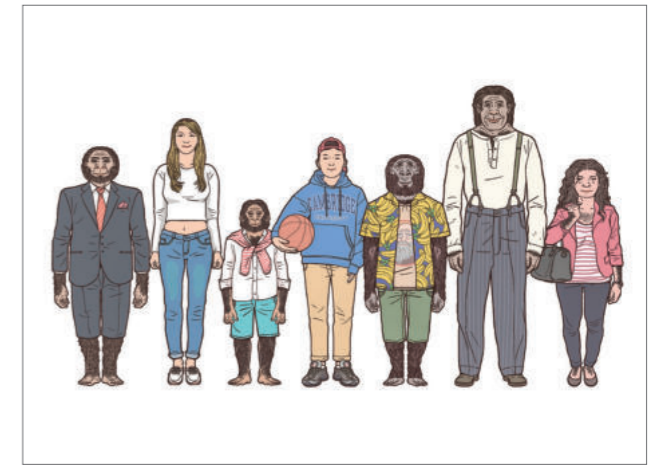
팔다리가 짧고 키가 작달막한 네안데르탈인의 체형
출처: wikipedia



최근에 복원된 네안데르탈인의 모습
출처: wikipedia



네안데르탈인과 현생인류의 머리뼈



네안데르탈인을 포함한 인류의 조상과 우리 현생인류
출처: 「우리는 모두 2퍼센트 네안데르탈인이다」 뿌리와이파리

로부터 이어져 내려왔을 확률이 대략 2퍼센트라는 의미이다. 아직도 어떤 의미인지 와 닿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2퍼센트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전체 염기쌍 중의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5대조 혹은 6대조 조상과 공유하는 유전자 비율인 1/32와 1/64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의 5대조 혹은 6대조 조상이 네안데르탈인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멸종한 옛 인류이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가 계속 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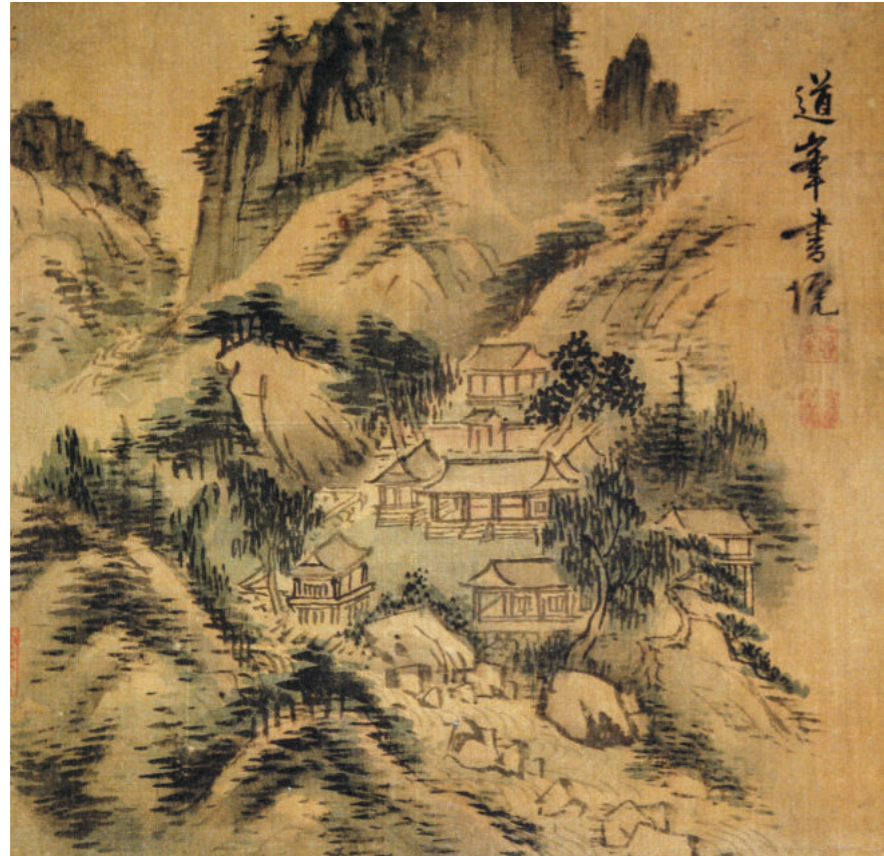
이렇듯 진화의 시간 속에서 먼지가 만들어낸 기후 변화는 옛 인류의 이동과 만남이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미세먼지도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할까? 이 대목에서 그동안 천덕꾸러기였던 미세먼지에 대해 호감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기대감이 생겨날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방송국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미세먼지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거절했겠지만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인류의 미래를 상상해보자는

취지라 재미있게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질문들 중에 미세 먼지 때문에 미래 인류의 코털이 머리털처럼 자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다. 영상에는 정말 코털이 수북하게 자란 미래의 인류가 머리카락을 가꾸는 것처럼 길게 자란 코털을 가꾸는 모습이 기발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분명 엉뚱한 상상이긴 하지만 우리 몸은 특정한 환경 조건에서 특정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디자인되고 또 그 디자인이 수정되면서 진화해왔다. 먹잇감에 따라 턱의 크기와 형태가 변했고 기온과 습도에 따라 코의 길이와 너비가 변한 것처럼 말이다. 지금 같은 미세먼지 지옥이 오랫동안 계속된다면 미세먼지에 대항해 보다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인류가 먼 훗날 더 많이 남겨질지도 모를 일이다. 진화의 시간은 주어진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은 인류를 택했고 우리의 몸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며 오늘날까지 디자인되어 왔다. 그러니 미세먼지가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적응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미세먼지가 자욱한 봄날 해본다. 🌪️

우은진 세종대학교 교수

나라를 편하게 하는 사찰 寧國寺



심사정, 도봉서원도, 건국대학교 박물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90(도봉동 512번지)은 1573년(선조 6)에 정암 조광조를 위해 세웠고, 1696년 송시열을 추가 배향했던 도봉서원이 있던 곳이다. 도봉서원은 선조와 영조로부터 두 번이나 사액을 받은 도성 인근의 가장 중요한 사원으로 조선 후기의 정치적 지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정선, 심사정, 이인문 등 많은 화가들이 도봉서원 그림을 남긴 이유도 그 때문이다. 또한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유일한 서원이기도 하다.

2012년 5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했는데, 발굴이 모두 끝나고 보완조사를 하던 10월 초 서원의 사당(祠堂)으로 추정되는 건물 터에서 청동 유물이 79점이나 발견되었다. 커다란 청동 동이와 향아리에 향로, 향합, 향완, 그릇, 손가락 같은 유물들을 차곡 차곡 담고 그 위에 대야와 화로를 덮어놓은 모습이였다. 단편적 기록으로만 전하던 고려시대 사찰 영국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2017년의 추가 발굴에서 발견된 혜거국사의 비편은 고려 초기 불교의 모습과 광종에 의해 3대 부동사원(不動寺院)으로 지목된 영국사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담고 있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열린 ‘도봉서원과 영국사’ 전시에서 이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도봉사’가 새겨진 청동 곁이향로, ‘계림공’이 새겨진 청동 굽다리 그릇 등 주목할 만한 유물이 많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강저와 금강령이었다. 주로 고려 시대에 불교의 한 종파인 밀교 의식에 쓰였던 의식구로 알려진 금강저와 금강령은 전해지는 유물의 수가 많지 않다. 영국사터 출토품은 파손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었을 뿐 아니라 조각 기법이나 조형 수준이 아주 뛰어난 일품이다.



금강저, 한성백제박물관

금강저와 금강령을 사용했다는 밀교는 불교의 다른 종파에 비해 힌두교의 의례와 교리를 폭넓게 받아들인 종파로, 다양하고 비밀스러운 불교 의례를 발전시켰다고 알려져 있다. 6~8세기경 인도에서 시작되어 발전하다가 인도에서 건너온 전법승이나 인도 순례를 갔던 구법승들에 의해 당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로 전래되었다. 왕오천축국전을 쓴 신라의 승려 혜초 역시 이들에게 배운 밀교 승려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본에서 당나라로 유학을 왔던 구카이(空海, 774~835) 역시 밀교를 배워 806년 귀국한 후 진언종(眞言宗)을 창시했다. 8세기 후반경이 되면 동아시아 전체에서 밀교가 새로운 불교사상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굴 당시의 모습

초기에는 금강저를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산스크리트어로는 바즈라(Vajra)라고 하며 제석천이나 금강역사의 무기이다. 번개를 모방한 무기로,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도구로 알려져 있다. 사악함을 몰아내고 악마를 항복시킨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가운데의 잘록한 손잡이를 중심으로 양쪽에 갈고리 같은 고를 표현했는데, 고의 수에 따라 독고저, 삼고저, 오고저, 구고저 등으로 나눈다. 영국사터 금강저는 오고저로 연꽃 모양 손잡이 양쪽 끝부분에 각각 네 마리의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으며 그 입에서 갈고리가 튀어나오는 형상이다. 청동

으로 주조한 다음, 두드려서 파거나 깎는 조 금彫金 기법으로 자세한 문양을 새기고 나서 도금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금강령과 탁설, 한성백제박물관

금강령은 소리 나는 방울에 금강저 모양의 손잡이를 달아서 만든 의식구로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요령이다. 당나라 때 밀교가 발전하면서 유행했는데, 소리를 내어 여러 부처와 보살들을 기쁘게 하고 어리석은 중생을 깨닫게 하려고 사용했다. 영국사터 금강령은 오고령으로 가운데 손잡이 부분은 연꽃으로 장식했다. 종 부분은 5면으로 나누어 11구의 존상을 새겼는데, 각 면 윗부분에는 오대명왕, 아랫부분에는 사천왕과 범천, 제

석천을 새겼다. 이렇게 11구의 조각이 있는 금강령은 동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금강령 안쪽의 고리에 매달렸다가 고리가 부식되면서 떨어진 물고기 모양의 탁설은 입에 보주를 물고 있으며, 아가미, 지느러미, 비늘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위쪽의 고가 시작되는 부분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사리를 봉안했던 사리구멍으로 보인다. 밀교 종파인 진언종이 지금까지도 세를 떨치고 있는 일본에서는 금강령에 사리를 봉안했다는 기록도 있고, 사리 봉안 흔적이 확인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된 사례이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일본의 사찰에 가면 보게 되는 명왕(明王)은 어떤 존재일까? 명왕이란 밀교에서 나타나는 부처의 변화신이다. 금강계 만다라의 주존인 다섯 부처의 명령을 받아,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과 마귀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눈을 부릅뜬 무서운 표정으로 칼이나 밧줄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사터 금강령에 나타난 다섯 명왕을 살펴보자. 부동명왕不動名王은 중앙의 부처인 대일여래大日如來(비로자나불)의 뜻을 받드는 명왕으로, 이마에는 7갈래의 머리카락이 있고, 오른손엔 칼, 왼손에는 밧줄을 쥐고 있다. 연화좌에 결가부좌한 채 용 위에 올라타 있다. 군다리명왕軍荼利明王은 남방 보생여래의 뜻을 받들며 팔이 여덟 개다. 머리에 보관을 썼고, 세 개의 눈이 있으며, 여덟 개의 손에는 금강저, 도끼, 밧줄 등을 들고 있다. 용이 받치고 있는 대좌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 있다. 항삼세명왕降三世明王은 동방 아축여래의 뜻을 받들며, 과거, 현재, 미래인 삼세에 걸쳐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항복시키는 명왕이다. 얼굴이 세 개, 팔이 여덟 개이며, 가운데 얼굴에는 세 개의 눈이 있다. 머리에 보관을 쓰고, 손에는 칼, 도끼, 활, 화살, 독고저, 밧줄 등을 들고 용 위의 연화좌에 결가부좌로 앉아 있다. 대위덕명왕大威德明王은 서방 무량수여래의 뜻을 받들며 여섯 개의 얼굴에 여섯 개



의 팔, 여섯 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얼굴은 모두 화난 표정이며, 가운데 얼굴에 세 개의 눈이 있고, 손에는 끝이 세 개로 갈라진 창, 밧줄, 활, 칼, 화살, 봉을 들고 있다. 서로 교차된 용과 물소 위에 앉아 있다. 금강야차명왕金剛夜叉明王은 북방 불공성취여래의 뜻을 받들며, 오추사마명왕이라고도 한다. 네 개의 팔에 금강저, 밧줄 등을 들고 있다. 화난 표정과 곤두선 머리카락 주변의 불꽃무늬 등은 모두 화가 나 있다는 표현이다. 세 개의 눈이 있고, 목과 몸통, 다리에 뱀을 감고 있다. 용 위에 한쪽 다리를 세운 모습으로 앉아 있다.

금강령과 금강저를 의례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의례를 거행하는 승려가 금강령과 금강저를 양쪽 손에 나누어 잡고 흔들거나 던지거나 돌리면서 사용했다고 한다. 법안종계 선종사원으로 알려진 영국

사에서 밀교 도상인 오대명왕을 제대로 표현한 금강령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밀교의 중요한 경전인 『신역 인왕경』에서는 이 경전을 읽으면 여러 재앙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경전을 오직 국왕에게만 부속시킨다는 구절도 있다. 따라서 영국사에서 행해진 밀교 의례는 왕실을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비밀스럽게 행해진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금강저와 금강령은 13세기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유물은 그보다 훨씬 앞선 밀교 전래 초기의 유물로 보인다.

천 년간 땅속에 묻혀 있다 우연히 드러난 이 유물이 고려 초기의 불교 역사를 새롭게 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김문숙 회원

고려청자의 세계

고려청자는 점토로 기물을 만들고 유약을 입혀 1150도 내외의 고온에서 구워낸 자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초기로 당시 가마들은 수도 개경에 가까운 중서부에 있었으나 1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을 중심으로 청자가 제작되었고 기술이 점차 정교해졌습니다.

고려 초에 1차 번조로 자기를 굽던 방식은 약 11세기경부터는 초벌구이를 한 후 유약을 입혀 다시 굽는 2차 번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고려청자는 11세기 중엽부터 눈에 띄게 발전하여 12세기에 절정의 경지에 이르렀고, 다양한 무늬로 아름답게 꾸며져 그릇과 같은 일상용품을 비롯하여 기와나 타일 같은 건축 자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고려청자의 색은 우리가 아는 '비색'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차츰 발전하여 12세기경에는 아름다운 초록색, 비색을 내는 고려청자로 탄생했습니다.

비색 청자의 완성과 함께 고려청자 도자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연 기술은 '상감기법'이었습니다. 청자토로 된 몸체에 무늬 부분을 선 또는 면으로 파낸 후 문양 또는 바탕에 백토나 자토를 넣어 메우고 다듬은 후 유약을 입혀 구워 청자의 푸른 바탕과 강한 색채의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고려의 상감기법은 12세기 중엽 전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2세기 말과 13세기 초를 거치며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전성기를 누립니다.



청자 투각 연꽃무늬 베개, 국립중앙박물관

평소부터 관심이 있던 고려청자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에 가볼 계획을 세웠으나 정작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청자 유물들은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특설강좌 리포트를 준비하느라 고려청자관을 유심히 관람하면서 공부한 내용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즐거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전시실 벽에 붙은 패널에는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었고, 칠보무늬 향로, 귀룡모양 주자 등은 설명이 곁들여진 영상이 준비돼 있어서 편안한 관람이 되었습니다.

호림미술관, 호암미술관 등 여기저기에서 고려청자를 조금씩 감상한 적은 있었지만,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청자관 중앙에 있는 다양한 상형청자들은 모양도 특이하고 정교하여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특히 석류 모양의 주자는 처음 보는 모양이었는데, 평상시에 주로 복숭아 모양 같은 것만 본지라 신기했습니다.

양각기법이 아름다운 연꽃 동자무늬 주자도 정말 아름다웠는데 도드라지게 양각된 꽃무늬가 열키설키 엮어진 것이 참 정교했습니다. 꽃잎 모양의 바닥 받침도 아름다웠는데 주전자 손잡이의 곡선까지 모든 곡선이 다 유연했습니다. 투각기법의 연꽃 넝쿨무늬 베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자기로 만든 베개라 색다르기도 했고 태극 비슷한 곡선도 아름다웠습니다.

벽 쪽에는 일반 식기류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꽃 모양 접시였습니다. 꽃 모양 접시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반원 모양의 테두리가 있는 그릇은 요즘 기성 도자기 제품으로도 많이 생산되는지라 익숙했습니다. 이렇게 옛 것을 실용적으로 재현하는 시도는 참으로 좋은 일 같은데, 국화 모양의 합도 재현하면 아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탐이 났습니다.



청자 석류 모양 주자, 국립중앙박물관

강의를 듣고 나서 전시실을 관람하니 아무래도 청자의 기법에 관한 용어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겠지만 전시실에는 양질의 고려청자만 있는 것 같아 공부한 내용을 다 학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본 회청색이나 보기에 완벽하지 않은 청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전시실의 부분 조명과 유리 때문에 진짜 비색을 볼 수 없다는 것도 불만족스러운 점 중 하나였지만 진기한 작품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작년에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 갔었는데 그곳 도자기 코너는 전시대에 있는 도자기를 꺼내서 돋보기로 볼 수도 있게 해주었습니다. 언젠가 고려청자도 그렇게 가까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뒤로 하고 전시 관람을 마쳤습니다. 🍵

김주현 회원

이별 못한 이별



두 폭 은접시 보자기, 국립고궁박물관

스쓸하다. 허둥지둥 나선 길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무언가가 기억났지만 되돌아가기에는 늦어버려서다. 이런 고약한 느낌, 낯설지 않다. 지난 봄 첫 아이의 혼사 때도 그랬다. 사랑한다 말하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안아줬던 적이 언제였던가. 크고 작은 감정들을 꺼내 보이는, 낯간지럽다 싶었던 모든 일들이 아쉽고 그립다.

봉과封裹, 왕실의 품격

마음의 표현이 마치 내용물이 드러나면 바로 버려지는 포장 같다고 여긴 적이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매듭이 헐거워져 자칫하면 물건이 빠져버릴 보자기처럼 난감한 꼴이 같아서였을까. 퐁퐁 싸매기도, 그렇다고 활짝 풀리지도 않는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갈팡질팡할 때 떠오른 것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전시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에서 보았던 보자기들이다. 비단·마·면·종이 등 여러 재료로 만들어진 홀보자기, 겹보자기, 솜보자기, 누비보자기, 기름종이를 직물에 부착한 맛보자기가 있었다.

물건의 수명은 사용뿐만 아니라 보관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귀한 물건과 행사가 많았던 왕실은 일상용품과 의물儀物의 진사에 더욱 공을 들였으리라. 왕실의 보자기는 요새 흔히 쓰이는 반질거리는 천과 달리 옷을 지어도 손색없겠다 싶은 재질이였다. 안감과 겹감, 끈마다 달리 쓰인 홍색·청색·자색·황색의 대비는 세련되고, 다양한 종류의 섬세한 문양은 멋스러웠다. 거기다 모서리에 붙인 끈으로 물건을 감아 묶어 여밈이 야무지고 품새가 단정했다.



도류불수문 노리개보자기,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한 폭 반 봉황문 보자기,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어떤 형태와 크기의 물건을 감쌌는지 짐작케 하는 흔적과 고정대, 향좌, 완충제 등 여러 부자재를 보며 포장은 내용물보다 하찮다는 예전 생각을 지워갔다. 아이를 품어주는 부모의 마음도 저처럼 맞춘다면 좋았을 터인데. 보자기 한 점 한 점이 주는 이의 정성과 받는 이에 대한 예의,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하피첩, 바라지 않는 붉은 마음

이별에 예습이 가능할까. 이별 후, 저러오는 마음에 남녀의 차이나 시대의 구분이 있으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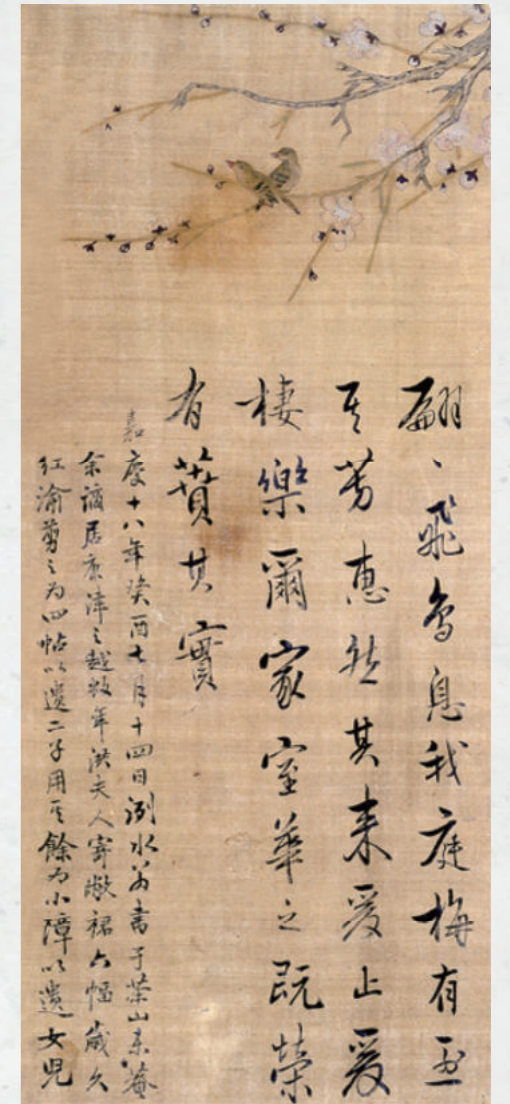
마음 한편 다홍 비단을 앞에 두고 붓을 든 한 사내의 모습이 그려진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하피첩, 부모의 향기로운 은택'에서 본 『정약용 필적 하피첩丁若鏞筆蹟 霞帔帖(이하 하피첩)』이 기억나서다.

하피첩의 제작연대는 1810년(순조 10년), 다산의 나이 49세 때였다. 그가 전라도 강진 땅에 유배된 지 10년째로 양수리에 남아있던 부인 홍혜완이 혼인 30주년이 되던 해에 낳은 치마와 함께 사언四言시를 지어 보낸 지 3년 후다.

‘그대와 이별한 지 7년/서로 만날 날 아득하니/살아생전 만나기 어렵겠소/집을 옮겨 남쪽으로 내려가/끼니라도 챙겨 드리고 싶으나/해가 저물도록 병이 깊어져/이내 박한 운명 어찌리까/이 애절한 그리움을/천 리 밖에서 알아주실지’

아내에게 보낸 다산의 답은 중국 복식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인 '하피첩'과 시집가는 딸을 위한 '매화병제도'였다.

‘내가 탐진(강진의 이칭)에 유배 중인데, 병든 아내가 낳은 치마를 부쳤다. 시집을 때 입었던 혼염(결혼 예복)이다. 홍색은 바래고 황색도 얼어져서, 서첩으로 만들기에 꼭 맞다. 이에 재단하여 작은 첩을 만들어, 경계하는 말을 붓 가는 대로 써서 두 아들에게 물려준다...’



매화병제도, 고려대학교박물관

200여 년 전, 세상과의 기약 없는 헤어짐 속에서 방대한 저술을 남긴 실학자이자 개혁가. 익히 들어온 다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려놓았다. 아버지,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다산을 보여주는 글과 그림이 길고 긴 이야기를 전한다.



평생도, 국립중앙박물관

『미암일기眉巖日記』, 그대는 나의 잃어버린 반쪽

400여 년 전 글에서 지금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결혼생활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들려주고 싶은 일화들도 담고 있다.

『미암일기』는 유희춘이 55세 되던 1567년부터 세상을 떠나던 해인 1577년까지 약 11년에 걸쳐 쓴 일기와 자신과 부인 송씨의 시문詩文을 모은 책이다.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는 가족 관계, 본손과 외손을 따지지 않는 친족 관계, 남자가 여자 집에서 혼례를 올리고 사는 장가와 처가살이 또는 친정살이가 보편적이었던 조선 중기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성리학적 질서에 의한 가부장적 조선사회라는 단편적인 상식을 유쾌하게 깨뜨리며 ‘금성에서 온 남자와 화성에서 온 여자’의 만남인 결혼에 유효한 조언을 건넨다.

살림을 주관하면서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평생 글을 써서 문집 『덕봉집』을 남긴 부인, 현대 여성으로 태어나서 비혼이라면 알파걸, 기혼이라면 슈퍼맘이 되지 않았을까. 긴 이별에도 돈독한 부부애를 유지한 데에는 임금께 글을 가르칠 만큼 경학에 능한 고위직 문관으로,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을 보살피고 존중해 온 남편의 역할도 중요했다. 첩과 서녀, 기녀에 관련된 현대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도덕성의 문제를 차치하고 바라본 유희춘과 송덕봉 부부는 진정한 동반자라는 인생의 난제에 한 모범 답안이지 싶다.

보자기와 하피첩에서 미암일기까지, 옛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오르며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것들을 되짚어 본다. 그러다 슬그머니 결혼은 더 이상 이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 생각이 미친다. 이전과 달리 필수 아닌 선택 가능한 통과의례이고, 무엇보다 현재는 지구 너머 우주까지 통신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던가. 어쩌면 훌쩍이며 떠나보낸 대상은 지금 그대로가 아닌 기억 속 걸음마를 시작한 어릴 적 아이는 아니었을까.

이제 정말로 헤어져야겠다 싶어진다. 생각만 하면 콧날이 시큰해지는 주책스러운 감상 말이다. 🐾

문정원 회원



숨길 국립제주박물관

말꼭지를 떼다

바삭한 햇빛이 내비쳐도 얼굴엔 숨 고르기 좋은 습기가 감긴다. 영등할망이 오시는 음력 2월 제주는 역시 바람 신의 냄새가 난다. 일만 팔천 신과 함께 살고 있는 섬, 제주의 국립박물관 중앙홀은 삼성혈 구멍에서 솟아나 사냥을 하며 지내던 신인神人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가 벽랑국에서 온 세 공주와 오곡 씨앗, 송아지, 망아지를 맞이하여 농경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삼성신화를 스테인드글라스로 표현하며 문을 열어준다. 전시실 첫 자리엔 18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제주에 현무암과 조면암이 분출되면서 우뚝 솟은 한라산과 오름들이 기다린다. 독특한 자연환경 속에서 빙하기에 육지와 붙어 있었다는 흔적을 보여주는 갈색곰 뼈가 남아 있고, 토기를 한반도보다 이천 년 앞서 제작하였다. 탐라국과 유배인, 이방인의 땅 그리고 섬사람들의 일상까지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이어진다.





수정사터 석탑 부재

국립박물관에서 보이는 국가 지정문화재는 찾기 힘들지만, 소중한 것은 일상 속에 있다는 깨우침과 더불어 제주를 제주답게 표현하는 유물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제주 유물 아우라

김녕 궤네기동굴에서 발견된 긴 삼각꼴의 전복껍질 화살촉과 괄지리 조개무지 유적에서 출토된 전복껍질 반달칼에 눈길이 머문다.

현무암을 갈아서 실생활용구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 제주에서 전복껍질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독특한 문화 요소였다. 기공이 많은 현무암으로 만든 유물도 보인다. 둥글납작한 현무암에 오목한 홈을 만든 오목돌과 원기둥의 공이, 음식물을 가는 용도로 보이지만 홈이 얇고 작아서 용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호랑이의 어금니를 상징하는 곱은 옥은 몸에 지니면 나쁜 액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을 주었다. 옥이 생산되지 않는 제주에 귀한 옥 대신 흙으로 곱은 옥을 만들어 목걸이로 사용하였는데 손쉬운 재료로 만든 꾸미개도 소량만 출토되는 것을 보면 그마저도 소수에게만 허락된 장신구였나 보다.

약 1만 년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토기를 사용한 고산리 신석기인들은 깨어지지 않도록 식물의 줄기를 섞은 흙을 이용하여 표면에 문양을 만들었다. 아쉽게

도 완형이 남아있질 않아 파편 형태로만 볼 수 있다. 삼양동 유적은 청동기 시대 대규모 마을 형성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한반도로부터 전래된 민무늬토기가 제주지역에 적응되는 양식이라고 한다. 고대국가의 기운이 움트는 괄지리식 토기에 오면, 아가리가 넓은 형태로 굽은 모래를 섞은 흙으로 두텁게 빚어 견고해진다. 탐라 후기 고내리식 토기는 다양한 크기의 원통 모양으로 꼭지가 달린 뚜껑도 만들었다. 정선된 흙으로 물레를 이용하고, 얇고 균일해지는 등 제작기술도 좋아졌지만, 화산토의 특성상 가마를 이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붉은 토기는 고립된 섬 문화의 예라고 하지만 제주 흙의 변화 발전 단계를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고내리식 토기

열린 공간, 유입된 문화

『삼국사기』에 따르면 바다를 향해 열려 있는 탐라는 백제와 신라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문물이 들어왔다. 중국 동전과 본뜬 거울, 옥환과 다량의 철기류 등 지배계층의 향유 품목들이었다. 용담동 무덤 유적에서 발견된 금동 허리띠 꾸미개는 제주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예로 의례용으로 보이며 인동 당초무늬를 돌을새김하였다. 물질하던 해녀들이 발견한 신창리 해저



테왁, 망사리와 닻들



옥환

유적은 중국과 일본을 잇는 주요한 교역로로서 제주의 역할을 보여준다. 꽃무늬가 새겨진 금팔찌와 구부러진 선이 아름다운 금제 뒤꽂이가 인상적이다.

신들의 땅, 제주에 불교 유물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수정사터 검은색 점판암 석탑 부재이다. 고려 말 석탑에선 보기 드물게 인왕상 한 쌍이 새겨져 있어 신선하다. 점판암의 유입 경로는 알 수 없으나 석탑재를 완제품으로 들여와 조립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금제 뒤꽂이

탐라를 그리다

1702년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은 일 년 동안 제주 각지의 방어 실태와 군민의 풍속을 살펴 화공 김남길로 하여금 기록화를 그리게 하였는데 그것이 보물로 지정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이다. 「한라장축」과 행사 장면 39면, 「호연금서浩然琴書」, 화기畵記로 구성되는데 제주의 역사와 풍속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독립된 제주도 지도인 「한라장축」은 임금이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렸기에 남쪽이 지도 위쪽에 놓여 특이하다. 감굴이나 말을 진상하는 제주민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물소중이처럼 보이는 옷과 물질 모습도 화첩에 담겨 있다. 이형상 목사가 조정에 올린 글에 “섬 안의 풍속이 남자는 전복을 따지 않고 다만 잠녀에게 맡긴다.”하여 이때부터 남자들은 군역에 동원되고 전복 공물은 해녀가 도맡아 제때에 바치지 못하면 고통을 받았다. 투구 역할을 하는 테왁과 전복 채취에 필요한 빗창과 망사리,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닻들에 해녀들의 볼락볼락 고달픔이 묻어나는 것 같다.

말마투리

‘호오이’ 물질하던 해녀들이 몰아쉬는 날카로운 숨비소리, 짙은 애상을 간직한 그 생명의 소리가 삼성혈 구멍에서 신인이 솟아오른 처음부터 척박하고 힘겨운 생존 공간을 헤쳐 나가는 섬사람들의 일상까지 국립제주박물관을 돌아보는 내내 따라다닌다. 산담 대신 야외전시장을 지키던 동자석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동자북, 서자북 복제품으로 달래야 했지만 박물관 위 사라봉 칠머리당에서 들리는 영등신 환송 바람축제가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시간은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고 하지만 생명의 땅 제주에는 ‘산꼭대기에 서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한라산’이 있고 시간을 지키는 국립제주박물관이 숨을 쉰다.

정은정 회원



『탐라순력도』 중 한라장축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칸의 제국 몽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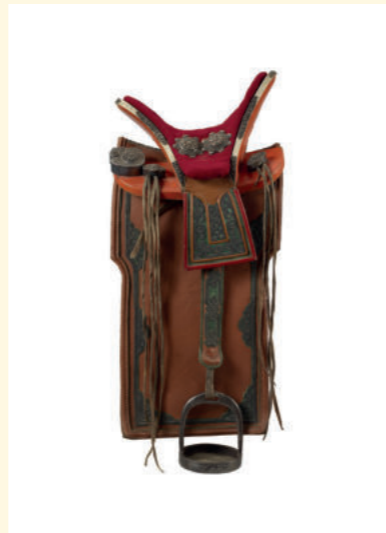
Nomadic Empires of the Mongolian Steppes



산양모양 칼자루 끝 장식, 몽골국립박물관



켈 테긴의 두상, 돌궐,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 고고학 연구소



안장과 등자, 몽골국립박물관

선사시대부터 농경을 바탕으로 정착 생활을 했던 한국인들에게 유목민들의 삶은 무척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나 몽골 초원의 유목 국가들은 일찍이 유라시아를 연결하며 세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광활한 초원을 내달리며 대제국을 건설해 동서 문화의 교류를 이끌어 낸 이 유목 제국들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전을 기획하였다. 특별전 '칸의 제국 몽골'은 7월 1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1부 '제국의 여명: 선사시대 몽골'에서는 몽골의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사용된 생활도구와 예술품을 만날 수 있고, 제2부 '고대 유목 제국: 흉노와 돌궐'에서는 몽골 지역에 최초로 국가를 세운 흉노(匈奴) 이후로 선비(鮮卑), 유연(柔然), 돌궐(突厥), 위구르, 키르기즈, 거란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목 국가가 지배했는데, 그 중 흉노 제국과 돌궐 제국의 문물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제3부 '몽골 제국과 칭기스 칸의 후예들'에서는 몽골 제국과 그 이후 근현대까지의 불교미술품과 생활용품을 다룬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몽골 문화와 관련된 한국 자료를 전시하여 양국 간 오랜 교류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꽃무늬 병, 분청사기실

친구를 부탁해

적당히 소박하고
적당히 모자란 듯하여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서
마음 문 열고 뻔뻔히 들여다보았더니
신기하지?
풀꽃이 집을 짓고
되려 위로를 하네
화목도 들고
다복도 들이라고
문 달아
따뜻하다고.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金正泰 회장을 거쳐 2017년 11월 申聖秀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申聖秀
 副 會 長 | 尹在倫 朴殷寬
 理 事 | 郭東錫 金錫洙 金信韓 南秀淨 朴禎原
 禹燦奎 尹碩敏 李玉卿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裴基同
 監 事 | 金教台 李教祥
 事 務 局 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주작회원
 尹光子 회원

현무회원
 金正泰 하나금융그룹

천마회원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孫昌根 소장가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申憲澈 SK에너지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尹章燮 전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鄭溶鎭 신세계그룹 부회장
 千信一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許榕秀 GS EPS 대표이사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금관회원
 姜德壽 (주)STX
 庚 園 광제사 주지
 權俊一, 具在善 Actium Group 부회장
 曉 曠 회원
 金南延 (주)동훈 대표이사
 金錫洙 동서식품(주) 회장
 金承謙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金信韓 대성 사장
 金芝延 (주)컨셉 대표
 全裁範 금강공업(주) 사장
 南秀淨 (주)썬앳푸드 사장
 都炯泰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朴炳燁 팬택&큐리텔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朴禎原 두산 네오플렉스 부회장
 宋英淑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尹在倫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李圭植 경신금융(주) 대표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李垞炘 MashupAngels 대표
 鄭明勳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鄭在鳳 (주)한섬
 趙顯相 효성 사장/전략본부장
 許允秀 (주)ALTO · (주)ALTEK 부사장
 許允烘 GS건설 전무
 洪政旭 헤럴드 · 올가니카 회장

은관회원
 姜院基 오리온 대표
 金教台 삼정회계법인 대표
 金寧明 (주)예을 이사장
 金英姬 회원

金載勳 영풍계약 부사장
 金鍾漢 (주)종합전기 대표
 柳芳熙 (주)풍산주택 회장
 柳智勳 (주)한담 사장
 朴英柱 아성다이소 부사장
 朴知原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裴東眩 창성그룹 대표이사 사장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成來恩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成弼鎬 광성기업(주) 대표
 宋秉峻 (주)게임빌 · (주)컴투스 대표이사
 宋 哲 성민출판사 대표
 梁洪碩 대신증권(주) 사장
 禹燦奎 학교재 대표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尹賢慶 동화약품 상무
 李教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李玉卿 서울옥션 부회장
 李周成 세아제강 부사장
 林鍾勳 한미메디케어 대표이사
 張仁宇 선인자동차 · 고진모터스 대표이사
 崔杜準 (주)동남유화 부회장
 崔正勳 대보건설(주) 부사장
 崔철원 M&M(주) 사장
 韓惠舟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청자회원

姜承模 KP그룹 부회장
 高基瑛 (주)금비 부회장
 具東輝 (주)LS 상무
 具本權 LS-Nikko동계련(주) 부장
 具本商 LIG넥스원(주) 부회장
 具本赫 LS-Nikko동계련(주) 부사장
 具瑗姬 한성플랜지 이사
 鞠賢永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權宅煥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金建昊 삼양사 팀장
 金京姬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金寧慈 (주)예을 명예이사장
 金大煥 (주)슈퍼리어·슈퍼리어홀딩스(주) 사장
 金東官 한화 큐셀 전무
 金東準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金相潤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性完 스무디킹 Global CEO
 金世淵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永珉 김&장 법률사무소
 金榮秀 2014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金裕錫 (주)행남 대표이사
 金侖壽 지리산 문화관 관장
 金恩惠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金益煥 한세실업(주) 대표
 金仁順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金載烈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金正宙 (주)NXC 대표이사
 金宗學 서양화가
 金兌炫 성신양회(주) 사장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金賢鎰 히든베이호텔 사장
 南兌勳 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
 柳重熙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柳善正 라인테너셔널법률사무소파트너변호사
 朴善正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朴宣注 대신제분(주) 부사장
 朴世昌 영은미술관 관장
 朴世昌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朴漢正 V&S자산운용 부장
 朴載相 성곡미술관 이사
 朴載蓮 (주)신원 부회장
 朴廷彬

朴正遠 재미교포
 朴俊泳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朴海春 TV조선 상무
 方正梧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裴允植 회원
 徐東姪 대한광통신 사장
 薛允碩 (주)경동홀딩스 상무
 孫元洛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辛炳讚 아름지기 이사장
 申硯均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永茂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愼昌宰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沈宗玄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楊仁集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梁汰會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吳勝敏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吳治勳 인성산업(주) 전무
 柳東鉉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柳東鉉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柳英芝 BlueRun Ventures 대표
 尹 寬 호림박물관 이사
 尹普鉉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尹勝鉉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尹楨善 삼일회계법인 전무
 李甲宰 (주)코오롱 상무
 李圭鎬 열화당 대표
 李圭鎬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李起雄 삼표산업
 李萬圭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美淑 목금토갤러리 관장
 李常宰 삼보모터스 프라코 상무
 李善眞 (주)에이티넬파트너스 대표이사
 李秀卿 한국미술협회 회원
 李承勇 (주)경농 부사장
 李承勇 (주)이테크건설 부사장
 李英純 OCI 사장
 李純子 남양유업 전문위원
 李容濬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李宇成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宇成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李宇成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李雲卿 (주)삼익유니버스 이사
 李胤基 흥아해운 전무
 李仁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李宰旭 롯데쇼핑 총괄사장
 李廷龍
 李柱翰
 李濬宇
 李芝衡
 李哲雨

李學俊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李海珍 NAVER 이사회 의장
 張同鎭 (주)파워맥스 사장
 張善霞 (주)교원 상무
 張升準 매일경제 사장
 洋賢財團
 田永采 (주)한길봉사회 이사장
 田潤洙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丁恩美 블룸앤코 대표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志伊 현대유엔아이 전무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曹榮美 경동소제 대표이사
 曹榮峻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曹在顯 (주)가온소사이터 대표
 趙希卿 하나유비에스 대표
 陣在旭 천일식품(주) 대표
 千碩圭 (주)카카오 CFO
 千碩圭 (주)인팩 대표이사
 崔世勳 회원
 崔世勳 SK(주) 부회장
 崔世勳 회원 · 자원봉사
 韓榮宰 노루홀딩스 회장
 咸泳俊 (주)오투기 회장
 許正錫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許辰秀 SPC(주) 부사장
 玄明官 (주)화승R&A 부회장
 玄智皓 호성호업 회장
 胡鍾一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胡昌成 남양유업(주) 부장
 洪範碩 고려제강 상무
 洪碩杓 고려상사(주) 부회장
 洪誠杓 회원
 洪元福, 金根鎬 (주)BGF리테일 전무
 洪正國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
 洪正道 마리오아울렛 이사
 洪進基 남양유업(주) 상무
 洪振碩 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黃仁奎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Mark Tetto TCK Investments 상무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